

7월 18일(월) / 수16-18

▶**내용요약:** 여호수아 16장에서는 요셉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중 에브라임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이 기록된다.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얻은 기업이 소개되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에 나머지 반 지파가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 18장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제비뽑아 자신들의 기업을 나누는 모습과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기록된다.

▶**질문:** 팔호를 채우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을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17장)

▶**생각하기:** 본문은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18장에서는 7지파가 아직도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을 지체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고 땅의 개척에 앞장섰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하나님이 부탁하고 맡기신 일임에도 아직도 지체하며 게으른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7월 21일(목) / 삼상22-25

▶**내용요약:** 사무엘상 22장은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울의 악한 모습이 기록된다. 23장은 다윗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은 그릴라 성을 구하고 엔게디 요새로 피신한다.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 25장은 아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다윗은 나발에 대한 불필요한 복수를 피하게 된다.

▶**질문:**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24장)

▶**생각하기:**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면서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된다. 그는 쫓기면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죽이지 않는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시라”(24:15)라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싫어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자.

7월 24일(일) / 삼하1-3

▶**내용요약:**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은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옷을 찢고 슬퍼한다. 또한 여호와와 기름부은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은 죄를 물어 아말렉 사람을 심판한다. 이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노래를 볼 수 있다. 특별히 요나단의 사랑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다는 부분에서 다윗의 상심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

7월 19일(화) / 수19-21

▶**내용요약:** 1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된다. 이미 기업을 받은 지파를 제외한 남은 6지파를 위한 기업 분배가 기록된다. 20장은 기업 분배에 이어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피성이 지정된다. 21장은 레위 지파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샅의 터전으로 얻는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전히 성취됨을 확인한다.

▶**질문:** 갓 지파의 도피성으로 지정된 지역은 어디인가?(20장)

▶**생각하기:**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땅의 분배가 마쳐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21:45)고 한다. 그렇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성취된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자!

7월 22일(금) / 삼상26-28

▶**내용요약:** 26장은 사울의 추적이 계속되지만 오히려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27장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여 시글락을 얻고 여러 지방 지역을 정복한다. 28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패배와 죽음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질문:** 다윗이 잠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서 그 증표로 사울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26장)

▶**생각하기:**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곤경에 처한 때에도 하나님이 아닌 엔들의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돌이켜 회개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신접한 여인을 찾는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며 참된 기독교인(True Christian)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서 기름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된다. 하지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윗과 대적한다. 3장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이 점차 강해진다. 반면 다윗의 대적인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분열하면서 아브넬은 다윗과 화해하지만 요압의 복수로 죽임을 당한다.

▶**질문:** 스루야의 세 아들 중 하나이며 들노루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용사로 아브넬을 쫓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구인가?(2장)

7월 20일(수) / 삿10-12

▶**내용요약:** 사사기 10장부터 12장은 암몬 자손의 압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기록한다. 먼저 10장에서는 돌라와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섬겼던 45년간 평화를 누렸지만 백성들이 지은 죄악으로 암몬 자손에게 압제를 당한다. 11장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12장은 입다에게 시비를 건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다툼이 나온다.

▶**질문:**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쟁쟁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죽은 사람의 수는 얼마인가?(12장)

▶**생각하기:**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자 자신들이 제외된 것을 시기해서 트집을 잡는다. 결국 그들은 수만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 가운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 누군가의 성공에 함께 기뻐하지는 못해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자”(롬 12:15)

7월 23일(토) / 삼상29-31

▶**내용요약:** 29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출전할 때 일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여 그의 군대를 시글락으로 돌려보낸다. 30장은 다윗이 시글락을 비운 사이 아말렉이 노략질하자 그들을 쫓아가 격퇴하고 빼앗겼던 물건과 사람들을 되찾는다. 3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참패하면서 길보아산에서 사울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최후를 맞는다.

질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와 왕자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함께 장사하고 7일동안 금식한 사람들은 어느 지방 주민들인가?(31장)

▶**생각하기:** 시글락이 공격을 당해 아말렉이 아이와 여인들을 잡아가지자 백성들이 분노하여 지도자인 다윗을 돌로 치려한다. 이때 말씀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30:6)고 기록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마음이 다급해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자!

▶**생각하기:**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나뉘어 싸움을 하고 나라는 분열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기에 다윗이 강성해진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만해도 이스보셋은 혈통이나 신분상으로 다윗보다 앞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선한 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